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북한 핵실험’ 왜 큰일인가요?

■ 세계 핵 보유국 현황은

한국 안보 큰 위협... 日·대만까지 핵무장 불러

지난 9일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발표로 전 세계가 들쭉날쭉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수많은 보도를 통해 핵실험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 북한의 핵실험이 왜 큰 일인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1 핵실험 왜 심각한 문제인가

우선 핵무기 자체의 파괴력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를 가졌고 대표적인 발사 수단인 미사일에 탑재할만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덜 위협적이라는 낙관적인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그 질적 수준을 따지기에 앞서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20kt의 우라늄탄으로 전체 인구의 60%가 사망했으며, 전체 가옥의 90%가 파괴됐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시 중심을 벗어난 산 정상 500m 상공에서 폭발, 6만4천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핵무기는 과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급에 버금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번 터지면 적어도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의 핵 보유는 동북아 국가들의 핵 도미노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동북아시아를 상시 핵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 선언으로 일본이 군비 경쟁을 강화하는 한편 핵무장을 추진할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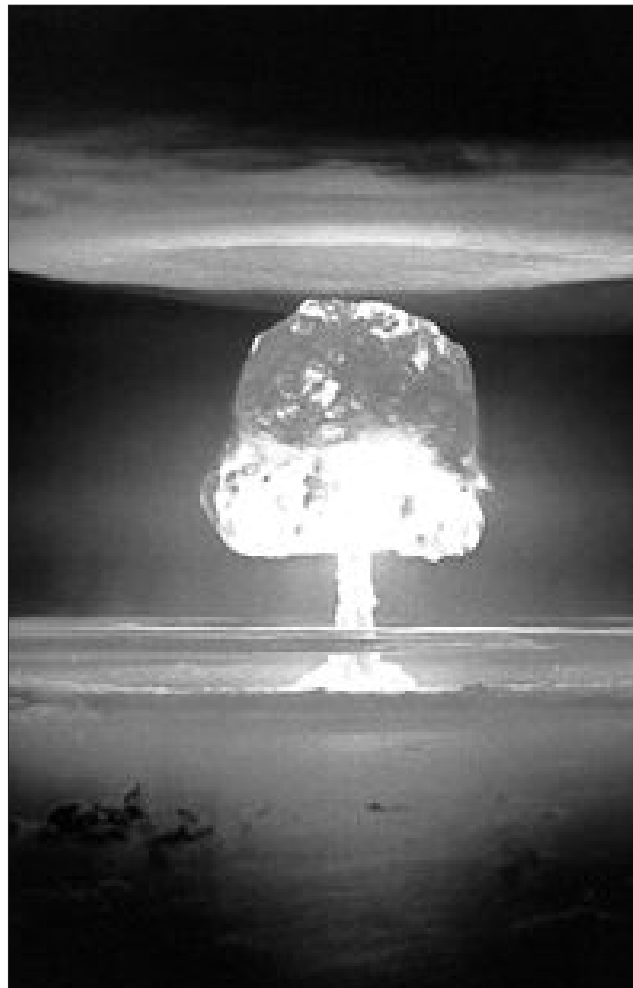
대만도 핵무기 보유를 위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이고 이는 동북아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킬 것입니다.

2 국제적 이슈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은 1960년대 소련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료를 도입한 이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으로부터 핵에 대한 평화적 사용에 대한 주문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가입하고 91년에 남북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국제원자력기구의 미신고 핵시설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때문에 1994년에 한반도에 전쟁 징후까지 발생했으나 그해 10월 ‘북한 핵동결’과 ‘북한에 경수로 건설 지원’으로 요약되는 북미 제네바협정 타결로 한반도에 핵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핵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북미 협약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북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북한은 다시 핵 무장의 길을 걷습니다. 북한은 2002년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고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그러



지난 1954년 3월26일 남태평양의 미국령 비키니 섬에서 이뤄진 핵 폭발 실험 장면. 이 섬의 이름을 따서 비키니 수명복이 만들어졌다.



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 내 군부 등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강경파들의 이야기대로 핵무장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마저 북한에서 떨어지는 등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김정일이 핵실험을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지탱해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4 북한의 핵무기 투하능력은

서울이나 도쿄 또는 미국의 일부 지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적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로 운반할만큼 충분히 경량화, 소형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핵무기를 항공기를 이용해 투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충분히 감시할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은 1998년 일본을 넘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미사일 7발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 중에는 제대로 작동하면 이론상 알래스카에 도달할 수 있는 다단계 로켓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 미사일은 이륙 직후 폭발했습니다.

5 전쟁 위험은 있다

당장 전쟁의 위험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하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국제정세가 당장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몰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이란과 이라크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만한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또 북한도 당장 무모하게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 예측입니다.

물론 북한이 체제 붕괴의 위험까지 갈 경우 군부내 강경파가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김정일 체제가 튼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특별취재반>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세계 핵 보유국 현황을 이리저리 살펴보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영·불·중·러 ‘핵클럽’ 가입국
이스라엘·파·인, 사실상 보유국
사우디 개발 추진...美 묵인 의혹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들 뿐이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다. 그러나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개발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라들은 많다. 한때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핵무기를 해체한 나라도 있다.

◇공식·비공식 ‘핵 클럽’ 국가=국제사회가 ‘인정함’ 핵 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이다. 이들은 1945~64년 차례로 핵실험을 벌였다. 1970년에 만들어진 핵확산금지조약은 출범 당시 핵보유국이던 다섯 나라에는 보유를 인정해주는 특혜를 줬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핵 클럽’ 국가에 다섯 나라 외에 인도, 파키스탄이 추가되기도 한다. 인도는 1974년, 파키스탄은 1998년에 핵실험을 해서 핵보유국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미·인도 정상회담 때 인도의 핵 보유를 인정해 주고 핵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도운 보답으로 경제제재 등을 풀어주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거센 논란이 일었다.



◇핵 보유 추정 국가=이스라엘은 1980년대 한 젊은 핵기술자의 폭로로 핵무기 개발 사실이 알려졌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2002년 발간된 ‘핵물리학과 불렛’의 보고서는 이 스톱라에 200개 개량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핵 보유는 중동분쟁의 뜨거운 감자이고, 미국에 ‘이중잣대’ 비난이 쏟아지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국가인 사우디도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으나 미국은 함구하고 있다.

◇핵 보유 주장 국가=이란은 지난 4월 스스로 ‘핵 클럽’ 가입을 선언했지만 아직까지 핵실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2002년부터 이란 핵사찰을 벌여온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아직까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 분량의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미 의회 정보위원회는 이란이 IAEA를 속이고 핵 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가 IAEA로부터 “근거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받았다.

◇핵 클럽 탈퇴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뒤 제조한 무기들을 자발적으로 해체한 세계 최초의 국가다. 남아공은 백인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이스라엘과 함께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핵탄두 6개를 보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당시 명분은 주변 흑인국가들로부터의 공격에서 자국을 방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철폐와 함께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 폐기를 선언하고 보유 중인 무기를 해체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 벨로 루시는 1990년대 NPT에 가입하면서 보유하던 핵탄두를 자발적으로 폐기했다.

<특별취재반>

10월 20일 예정

임대사업자 및 직원 모집

도곡본점: 064-744-1109

제주도 여행 2박3일 74,000원

1박2일 폭키투어 64,000원

3박4일 폭키투어 104,000원

문의: 064-744-1109